

□ 정부시책 □

산업자원부, 민간기관 環境設備 품질 인증 허용

앞으로 민간기관도 환경설비품질인증을 할 수 있게 되며 환경경영체제(ISO 14000) 심사원자격 인증기관이 단일화 된다.

산업자원부는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ISO 14001) 관련규제, 환경설비 공제사업 및 품질인증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인증기관간 경쟁을 촉진, 환경설비 품질인증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 및 환경설비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설비품질인증을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관도 가능토록 했으며 환경설비 공제사업의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심사원인증기관을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일원화, 심사원의 편의를 증대키로 했다.

현행법상 심사원인증기관은 산자부장관 또는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원화 되도록 하고 있어 정부기관이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에 관여하는 불합리점을 안고 있다.

또 산자부는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연수기관, 심사원인증기관의 업무규정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 각 기관의 중복심사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키로 했다.

이을러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시범사업을 폐지, 지역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간 활동실적이 미미했던 산업환경정책심의회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산자부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업무규정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명칭·소제지 변경신고제도, 업무휴·폐지 신고제도 등도 없애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중소기업청, '99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침 확정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 '99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지침을 확정 발표하 자금지원대상 대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였다.

'99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침은 튼튼하고 강한 중소기업의 육성, 모험적인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별 인프라확충을 위한 시책을 지방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특화지원함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의 효율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가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조성·운용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99년도중 정부가 3,962억원을 지원
 - ※ 구조조정 3,120억원, 입지지원 230억원, 특별지원지역 300억원, 유통구조개선 162억원, 시장재개발 150억원
- IMF 금융지원 이후 시설투자 감소와 소비위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자금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동 자금을 운전자금만 필요로 하는 업체에도 지원하도록 개선
 - 지원대상 : 수출업체, 지역특화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기 시설개체사업 추

진업체, 도소매업 점포개선사업 추진업체

- 지원액 : 3억원이내(년리 10%이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99지원규모 : 3,000억원 내외
- 시장재개발·재건축 지원자금의 경우 종래에는 기존위치에서 재개발·재건축시만 지원하던 것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 지방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 기업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6개 시·도별로 건립을 추진중인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건립을 위해 200억원을 출연

■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수출촉진

- 지역특화산업 기술정보의 교류 및 특화상품의 수출 등 판로 확대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특화산업 NET」를 구축
- 각 수출지원기관이 연계하여 중소기업지원을 집중화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 서울, 부산 등 12개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설치하여 마케팅, 금융, 보증·품질·디자인 등 종합지원

국립기술품질원, 독일 VDE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체결

- 국내 전기전자 관련 업체들은 앞으로 국립기술품질원의 시험인증을 통해 유럽연합(EU)의 CE마킹을 획득할 수 있게됐다.
- 국립기술품질원은 독일 전기기술자협회 의시험·인증시험소(VDE Testing & Certification Institute)와 전기전자 제

품의 시험·평가에 대한 상호인정을 합의,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 이에따라, EU 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전기 전자 업체들은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시험·평가에 합격하면 VDE의 시험·평가에 합격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돼 CE 및 VDE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 EU 국가는 자국의 산업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CE마킹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체에서는 CE마킹 인증시험의 핵심인 전기 안전성 및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을 위한 정밀측정 시설마비,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인증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CE 및 VDE마크 획득을 위한 시험 수수료, 운송료, 출장비 등의 경비와 현지 시험·평가에 필요한 장기간의 시간소요는 우리 중소기업체의 큰 부담으로 되어 왔다.

- 이에 기술원이 CE 및 VDE마크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를 국내에서 가능하게 해 줌으로서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경제적, 시간적인 비용을 절감시켜 EU지역 수출에서 겪는 애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전기드릴 인증을 VDE에 직접 신청하였을 경우 시험비 900만원, 출장비 500만원 등 제반비용 2,000만원에 시험·평가 기간이 5~6개월 정도 소요되나, 기술원을 통해서 인증을 신청할 경우 비용은 700만원, 시험 평가 기간은 2개월로 단추되어 비용과 시간이 약 1/3로 줄게 된다.

- 기술원에서는 VDE와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체결로 국내 중소기업체들의 CE 및 VDE마크 획득이 간편해짐에 따라 전기전자 제품의 대 EU지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전기전자 업체로 부터의 인증 신청에 대비 시설개방, 장비제공, 기술인력 지원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선금보증금 인정범위 안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98. 7. 25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98. 8. 1부터 보증보험계약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안전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서의 선금보증금은 비은행권 구조조정 등 정부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납이 보류되어 왔으나,

'98. 11. 25 통합보증보험회사(코리아 보증보험회사)가 발족 예정이므로 통합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은 선금보증금으로 수납이 가능함을 알려 드려니 선금보증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